

# 진안 소과종 칼라수박 출하

노란색·빨강색 총 5종 3~5kg내외로 당도 12브릭스 이상

여름철 대표 과채류인 진안고원 수박의 변신이 시작됐다. 진안군은 지역 대표 특화품목인 수박에 새로운 품종을 적용한 소과종 27작 수박을 시범 재배하여 칼라수박 5종을 이번 주부터 본격 출하한다.

기존 10kg 이상의 대형 수박은 식구가 적은 가정에서는 꺼려지고 있는 추세로 소비 트렌드에 맞춘 소과종 수박은 작고 예뻐면서도 더 맛있다.

이번에 출하되는 칼라수박은 흰색(스포츠 수박-이온음료맛), 노란색(2종), 오렌지색, 빨강색 총 5종이다. 3~5kg내외로 2~4인 가족이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멜론 정도의 크기이며, 당도는 12브릭스 이상이다.

소과종 수박은 착과 후 35일로 수확하기 때문에 연중 27작 재배가



진안군은 수박에 새로운 품종을 적용한 칼라수박 5종을 이번 주부터 본격 출하한다.

가능하며, 추석 과일로 먹기에도 안성맞춤이다. 특히, 이번에 생산된 소과종 수박은 전주 호성동에 위치

한 진안로컬푸드 매장에 전량 납품될 예정이다.

소과종 수박을 재배한 손성호 농가는 "소과종 수박은 1주에 2개의 수박을 착과시켜 키우는 게 핵심 기술이다. 양수분 및 재배환경 관리가 매우 중요하며, 베드재배로 농작업의 효율성을 높였다."며 "소과종(블랙망고 등) 수박하면 진안이라는 브랜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업기술센터 김필환 소장은 "기존 수박 재배방식에 새로운 생각을 접목한 베드재배로 작업이 훨씬 수월하고 하우스 시설의 연중 활용이 가능한 재배 기술이다. 또한, 로컬푸드 품목의 다양화를 위한 실증사업 개발로 농가 소득 향상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원연장마을은 최근 '연꽃 향기 날리며 원연한마당' 마을축제를 성황리에 열었다.

## 진안 '연꽃 향기 날리며 원연한마당' 축제 성료

진안군 원연장마을은 최근 '연꽃 향기 날리며 원연한마당' 마을축제를 성황리에 열었다.

원연장마을은 4만여평의 아름다운 꽃잔디 동산이 있어 원연장 꽃잔디마을로 불린다. 매년 170여개 팀이 마을 만들기 학습을 위해 찾는 공동체가 활성화된 마을이기도 하다.

특히 주민들이 직접 가꾸는 1200여평의 공동 연 밭이 있어 연잎밥, 연잎차, 연잎두부만들기 등 다양한 음식체

합과 더불어 마을 자체 농산물만을 사용하는 농가 레스토랑 등을 상시 운영하고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모든 시설은 마을주민이 직접 운영하고 있다.

이날 축제에는 약 100여 명의 주민과 내·외빈이 참석하여 마을 탐방과 연잎밥 만들기 체험을 시작으로 인절미 만들기, 소원등 달기, 소리한마당 등 남녀노소 모두가 즐기는 축제가 됐다. /진안=우태만 기자

### 지역 매아리

#### 장수 계북면민의 장 수상자 3명 선정

장수군 계북면은 최근 면사무소 회의실에서 면민의 장 심사위원회(위원장 이성재)를 열고 공익장에 이장우(59·어전리), 애향장 최용선(50·임령리), 효열장 최찬홍(71·농소리)씨를 선정했다.

제70회 계북면민의 날을 맞아 공익장 이장우 씨는 장수군 토마토연합회를 결성하고 초대 회장을 역임하는 등 다양한 활동으로 지역 농업인과 소통하고 교육을 함으로써 농업인의 권익보호 및 소득향상에 크게 기여했다.

애향장 최용선 씨는 모교인 계북중학교에서 사무국장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고향 행사 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면민을 위해 봉사하는 등 고향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모범적인 고향지킴이라는 평이다.

효열장에 선정된 최찬홍 씨는 고향으로 거동과 생활이 불편한 아버지(99)와 어머니(94)를 정성을 다해 봉양해 귀감이 되고 있다.

시상은 오는 8월 15일 열리는 제70회 계북면민의 날 및 한마음 체육대회 기념식장에서 있을 예정이다.

/장수=고판호 기자

#### 진안 동향면민의 장 수상자 4명 선정

진안군 동향면(면장 박태열)은 면민의 날을 기념해 최근 면민의 장 심사위원회를 열고 지역발전에 공헌하고 면민들을 위해 헌신 봉사하며 타의 모범이 되는 4명의 면민의 장 수상자를 선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수상자는 문화체육장 이춘하(55), 산업근로장 김일곤(57), 애향장 김영근(58), 효열장 남만수(45)씨다.

문화체육장 이춘하씨는 지난해 수박축제추진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축제의 성공적 개최에 기여하고 지역발전에 대한 헌신과 노력으로 주민들의 귀감이 되고 있음을 인정받았다.

산업근로장 김일곤씨는 고추작목반장으로 고추농가 소득증대에 갖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동향수박연구회 회장을 맡아 선진 수박 재배 기술 전파에 노력했다는 평가다.

애향장 김영근씨는 향우들의 애乡심을 북돋우고 만남의 장을 마련하는 등 고향발전에 이바지 한 공을 인정받았다.

효열장의 남만수(45)씨는 농사일로 바쁜 와중에도 93세 고령의 시어머님을 친부모님처럼 극진히 모시는 등 효행의 참 모습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면민의 장 수상자는 오는 27일 열리는 제11회 진안고원 수박축제 및 제24회 동향면민의 날 기념식에서 시상할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 무주, 찾아가는 치매예방 프로그램 운영

## 10월 25일까지 무풍면 덕지, 설천면 구천 등 6곳 방문

무주군이 '치매걱정 없는 무주 만들기'에 주력하고 찾아가는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찾아가는 치매예방 프로그램은 보건 의료 취약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치매예방 서비스를 지원받으며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

는 취지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오는 10월 25일까지 무풍면 덕지, 설천면 구천, 적상면 상곡, 안성면 공진과 공정, 진도 보건진료소 6곳을 찾아가게 된다.

무주보건의료원에 따르면 14회에 걸쳐 치매검사를 비롯한 치매예방체조와 인지훈련, 그리고 공예와 음악,

운동을 통한 인지 자극 활동을 진행한다.

보건의료원 치매안심센터 황영내 팀장은 "시간이나 여건이 안 돼서 의료원 치매안심센터를 찾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직접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라며 "지역강사들이 6개 보건진료소를 찾아가 운동과 체조, 요가, 노래, 난타, 공예, 캘리그래피, 민요, 인지기능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이팔정춘 치매예방교실'과 함께 치매가 걱정되거나 앓고 있는 분, 또는 가족 분들께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지난 6월 30일 기준 보건의료원 치매안심센터(2018. 8. 개원)에 등록된 환자는 688명이다.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 진단과 감별검사, 치매 환자 조호물품 지원 뿐 아니라 치매 환자 윈터 프로그램, 치매환자 가족교실, 가족 자조 모임 등반 치매환자보호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이어 지난 5월부터 안성면 외당마을과 부남면 가정마을이 치매안심마을로 선정해 주2회 이곳에서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치매안심센터 직원이 직접 각 가정을 방문해 치매선별검진과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이 찾아가는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 산서새마을금고, 장수군애향교육진흥재단에 장학금 기탁

산서새마을금고(이사장 안홍수)는 최근 (재)장수군애향교육진흥재단에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150만원을 기탁했다.

산서새마을금고 전 직원은 "(재)장수군애향교육진흥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수꿈의학당과 장수학당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고 싶었다"며 "학당사업이 활성화되어 우리 장수

군에서 훌륭한 인재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장영수 재단이사장은 "(재)장수군애향교육진흥재단의 학당 사업에 큰 힘이 되어준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내실있는 학당사업을 추진해 우리 청소년들이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 주천면, 주민참여예산 지역분과위 개최

진안군 주천면은 최근 지역분과위원회 6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9년 제1차 주민참여예산 지역분과위원회(이하 지역분과위)를 개최했다.

이번 지역분과위원회는 작년에 요구한 예산의 추진상황을 전해 듣고 내년도 본예산에 요구할 지역사업을 제안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주천면 지역분과위는 지난해 2019년 본예산으로 21건, 14억3500만원을 요구하여 이 중 무릉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던 무릉선 도로확포장 공사 등 17건, 6억 500만원이 반영되어, 농로포장 및 배수로 정비 등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은 상반기 신속집행으로 대부분 마무리되고 있다.

내년도 필요예산으로 주민의 안전과 관련된 도로 위험구간 선형개량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등이 우선 건의되었다.

김미화 지역분과위원장은 "우리 동네 예산 확보도 중요하지만 다수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사업을 우선 발굴해 보자"며 "다음 회의까지 제안된 사업은 보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더 많은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시 논의하자"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